

여자 청소년들의 무용유형에 대한 태도: 시대간 비교

임정희** 세종대학교

이 연구는 의미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여학생들의 순수무용에 대한 태도를 구명하고 이들의 태도는 1998년에 조사된 결과와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본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17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된 928명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의미분석척도의 형용사 군은 Osgood, Suci, Tannenbaum (1957)로 부터 요인별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낸 14쌍의 형용사를 허경자(1998)가 '일반여학생의 무용유형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다. 산출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각각 .789, .816, .777로 나타났다. 설정된 연구문제는 일차적으로 다변량분석(MANOVA)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M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세 개 요인 각각에 대해 2요인 혼합 모형 ANOVA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원 M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용유형별 세 가지 태도요인간에는 Hotelling의 $F^2=238.59$, $p<.001$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첫째, 세 가지 무용유형에 대한 '가치평가'와 무용의 '활동성', '활력성'에 대해 여학생들은 차별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한국무용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M=5.5$)하고 있으며, 현대무용은 가장 활동적($M=5.1$)이고 활력적($M=5.0$)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둘째, 여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 즉, '무용에 대한 가치평가, 무용의 활동성과 활력성'에 대한 지각은 지난 20년 동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주요어 : 무용에 대한 태도, 여자 청소년, 의미분석척도, 태도변화

I. 서론

무용의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국내외 학자들(예를 들면, 박윤희, 차수정, 2014; Bonbright, Bradley, & Dooling, 2013; Nieminen, 1998)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용은 청소년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유발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지적, 정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활동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National Dance Association, 1988). 무용은 또한 청소년들의 창의적, 예술적,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으로서 무용은 체력과 건강,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rner, 2001).

태도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무용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이 중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조사는 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Nieminen, 1998; Quin, Redding, & Frazer, 2007). 전통적으로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무용에 대한 긍정

* 교신저자 : elylim94@naver.com

적,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구명하기 위해서였다. 국내에서 무용에 대한 태도연구는 적지 않은 연구자들(예를 들면 김주영, 2001; 두만균, 배경옥, 2003; 배진경, 2004; 백혜원, 1993; 유영주, 2010; 최지훈, 2002; 허경자, 1998; 허경자, 최윤선, 배진경, 1997; Quin, Redding, & Frazer, 2007 등)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무용유형별 전공자들의 태도를 비교(Hendry & Douglass, 1975)하거나 무용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 변인간의 관계(김주영, 2001; 두만균, 배경옥, 2003; 유영주, 2010)를 구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각급학교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무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일반 학생들이 순수무용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사례는 허경자(1998)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허경자(1998)는 의미분석척도를 이용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 일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순수무용 각각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 여학생들은 학교급별과는 무관하게 발레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무용이 상대적으로 활동적이고 한국무용이 가장 활력적(powerful)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무용전공자가 지각하고 있는 결과(허경자, 최윤선, 배진경, 1997)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가 수행된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태도의 형성과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무용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 태도간의 차이여부는 실제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무용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태도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체계적인 관찰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지 학생들은 매스컴이나 공연 등, 문화적인 기회가 증대된 현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무용유형의 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과 허경자(1998)의 선행연구 결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반 여학생들의 순수무용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그동안 무용분야에서 태도의 측정은 Edwards (1973), Kenyon (1968), Osgood, Suci, & Tannenbaum (1957) 등에 의해 개발된 도구가 활용되어왔다. 이 중 Kenyon (1968)과 Edwards (1973)가 개발한 태도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은 태도측정을 위한 요인 수, 요인별 문항 수, 그리고 포함된 문항내용의 차이 때문에 연구결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윤희, 차수정, 2014). 이 중 Osgood, Suci, & Tannenbaum (1957)은 특정 개념의 의미를 방향과 거리를 갖는 의미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양극단에 대비되는 의미를 가진 50개의 형용사 자극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는 의미분석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개발하였다. 이들 척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평가요인(evaluation), 활동요인(activity), 능력요인(활력: potency)'으로 명명된 독립적인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변량의 50%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미분석 방법은 다양한 상황 혹은 문화적 맥락에서 단순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특정개념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 가치 등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Osgood은 의미분석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세 개의 요인구조가 비영어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즉, 상이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특정개념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태도는 인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Osgood, 1990).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척도를 이용하여 태도의 시대적 변화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는 의미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여학생들의 순수무용에 대한 태도를 구명하고 이들의 태도는 1998년에 조사된 결과와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여학생들이 지각한 무용유형별 태도요인(가치평가, 활동, 능력)

의 수준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여학생들이 지각한 무용유형별 태도요인별 수준은 시대 간에 차이가 있는가? 이다. 이 연구결과는 순수무용에 대한 일반 여학생의 태도변화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일반 여학생들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에 대해 현재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들의 태도는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기 위해 1998년에 조사된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표본대상을 선정하였다. 표본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17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된 945명이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이 설문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에게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자기보고방법(self-report method)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동일한 응답이 5문항 이상 반복되거나 5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박윤희, 2015). 자료분석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수는 고등학교 학생 470명, 대학교 학생 458명, 전체 928명이다.

2. 조사도구

고등학교와 대학교 일반여학생들의 순수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에 대한 태도는 Osgood, Suci, & Tannenbaum(1957)이 개발한 의미분석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의미분석척도의 형용사 군은 선행연구(Hall, 1972; Harasym, 1969; O'Bryan & O'Bryan, 1969; Osgood, Suci, Tannenbaum, 1957)로 부터 요인별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낸 14쌍의 형용사를 허경자(1998)가 '일반여학생의 무용유형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다(표 1 참조). 14개 문항 중 평가요인은 8쌍, 활동요인과 능력요인은 각각 3쌍의 형용사 군으로 구성되어있다. 의미분석척도에서 '가치평가'란 특정개념을 긍정적(positive)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되며 '활동'이란 특정개념을 활동적(active) 혹은 수동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능력'이란 특정개념을 활력있게(powerful) 혹은 무력하게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표준국어대사전(2017)은 활동을 '몸을 움직여 행동함'으로, 활력은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14개 형용사 군으로 구성된 의미분석척도의 신뢰도는 1997년 허경자, 최윤선, 배진경이 '무용전공학생의 무용유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할 때 보고된 신뢰도와 비교하기 위해 각 무용유형별로 산출하였다. 산출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각각 .789, .816, .77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계수는 모두 .70 이상을 보임으로써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계수로써는 비교적 만족스러운(Baumgartner, Jackson, Mahar, & Rowe, 2007)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허경자 등(1997)이 상기한 연구에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대상으로 산출된 신뢰도계수(α)인 .865, .798, .864와 했을 때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의미분석척도

좋은	1	:	2	:	3	:	4	:	5	:	6	:	7	나쁜
더러운	1	:	2	:	3	:	4	:	5	:	6	:	7	깨끗한
서투른	1	:	2	:	3	:	4	:	5	:	6	:	7	우아한
아름다운	1	:	2	:	3	:	4	:	5	:	6	:	7	추한
슬픈	1	:	2	:	3	:	4	:	5	:	6	:	7	행복한
현명한	1	:	2	:	3	:	4	:	5	:	6	:	7	어리석은
빠른	1	:	2	:	3	:	4	:	5	:	6	:	7	느린
게으른	1	:	2	:	3	:	4	:	5	:	6	:	7	부지런한
가치있는	1	:	2	:	3	:	4	:	5	:	6	:	7	가치없는
능동적인	1	:	2	:	3	:	4	:	5	:	6	:	7	수동적인
작은	1	:	2	:	3	:	4	:	5	:	6	:	7	큰
좋아하는	1	:	2	:	3	:	4	:	5	:	6	:	7	싫어하는
딱딱한	1	:	2	:	3	:	4	:	5	:	6	:	7	부드러운
약한	1	:	2	:	3	:	4	:	5	:	6	:	7	강한

3. 자료처리방법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세 개 요인(평가요인, 능력요인, 활동요인)에 대한 태도 수준이 무용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다변량분석(MANOVA)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M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세 개 요인 각각에 대해 2요인 혼합모형 ANOVA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인 분포의 정상성,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 구형성(sphericity) 가정을 검증하였다. 정상성 가정은 각 무용유형의 세 개 하위요인별 편포도를 산출한 후 이들 값의 Z검증 결과에 의해 결정하였다(Leech, Barrett, & Morgan, 2008). 학교급별(고등학교, 대학교) 변량-공변량행렬의 동질성 검증은 Box M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세 개 요인 각각에 대한 무용유형별 측정치의 변량 동질성 검증은 Mauchly의 구형성 가정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구형성 가정 검증결과 산출된 Huynh-Feldt의 ϵ 값이 .75 이하일 경우 MANOVA 방법을, ϵ 값이 .75 이상일 경우 반복측정 ANOVA 방법을 적용하였다. 유의수준(p)은 일반적으로 표본수의 크기에 의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크기(ES)인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η^2 은 SPSS 통계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치이다. η^2 은 그 관계강도가 .01 이하일 때 무시할 수 있는 정도, .01~.06는 적은 정도, .06~.14는 중 정도, .14~.20는 높은 정도, .20 이상은 매우 높은 정도로 해석한다(Cohen, 1988).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친 후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설정된 유의수준(α)은 .05 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여학생들이 지각한 세 개 요인(평가요인, 능력요인, 활동요인)에 대한 무용유형별 태도 수준의 변화 차이를 1998년의 조사결과와 2017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t 검증과 효과크기(effect size: ES)를 산출하였다. t 검증은 GraphPad Software에서 제공하고 있는 't-test Calculator'를 이용하여 유의수준(p)을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는 Hong Kong Polytechnic에서 제공하고 있는 'Effect Size Calculator'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III. 결과

〈표 2〉는 학교급별간, 무용유형 각각에 대한 세 개 태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학교급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무용유형별 세 개 요인에 대한 태도 수준은 이론적 평균($M=4.0$)보다 높다. 즉, 무용유형별 평가요인, 활동요인, 능력요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학생들이 지각한 세 가지 무용유형(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에 대한 세 개 태도요인(평가요인, 능력요인, 활동요인)의 수준 즉, 전체 9개 태도 수준간의 차이를 일원 M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Hotelling의 $T^2=238.59$, $p<.001$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MANOVA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반복측정에 의한 ANOVA를 이용하여 무용유형 별로 평가요인, 활동요인, 능력요인 각각에 대한 태도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학교급별간, 무용유형별 태도요인의 평균±표준편차, 효과크기(d): 2017년 조사결과

학교급별 무용유형	요인	고등학교 (n=470)	대학교 (n=458)	전체 (n=928)
한국무용	평가요인	5.54±0.87	5.43±0.87	5.49±0.87
	활동요인	4.78±0.88	4.61±0.95	4.69±0.92
	능력요인	4.94±1.02	4.90±1.03	4.92±1.03
현대무용	평가요인	5.28±0.96	5.10±0.90	5.19±0.94
	활동요인	5.04±0.98	5.11±1.01	5.07±1.00
	능력요인	4.99±1.02	5.00±0.98	4.99±1.00
발레	평가요인	4.46±0.51	4.38±0.48	4.42±0.50
	활동요인	4.85±0.92	4.94±1.02	4.90±0.97
	능력요인	4.77±1.03	4.70±0.95	4.74±1.00

1. 한국무용에 대한 태도요인간 차이

한국무용에 대한 태도요인간 측정치들의 집단간 동등성 검증을 위해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등성 검증결과 Box M의 값이 7.70, $F(6, 6201492.02)=1.28$, $p=.26$ 으로써 집단간 변량의 등질성 가정은 만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uchly의 구형성 가정 검증결과 $w=.91$, $\chi^2=90.44$, $df=2$, $p<.001$ 로써 세 가지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의 변량은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형성 가정 검증결과를 기초로 이 자료는 다변량분석(MANOVA)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학교급별간(G) x 태도요인(T)간의 상호작용효과는 Wilks' $\lambda=1.00$ $F(2, 925)=1.43$, $p=.24$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참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별간과 태도요인간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학교급별간 태도요인의 평균 간에는 $F(1, 926)=4.58$, $p=.03$, $\eta^2=.005$ 로써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요인간 역시 Hotelling의 $T^2=0.92$, $F(2, 925)=425.71$, $p<.001$, $\eta^2=.48$ 로써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에 대한 세 가지 태도요인간 대비검증(contrast) 결과 평가요인과 활동요인 간에는 $p<.001$, $\eta^2=.45$, 평가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p<.001$, $\eta^2=.23$ 으로써 통계적,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p < .001$, $\eta p^2 = .04$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적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무용에 대한 태도점수 간에는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여학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무용의 평가요인($M=5.5$)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능력요인($M=4.9$)과 활동요인($M=4.7$) 순으로 지각하고 있다.

표 3. 한국무용에 대한 태도요인간, 학교급별간 MANOVA 결과

		value	df	F	p	ηp^2	Power
피험자간							
학교급별간(G)	SS=	7.36	(1, 926)	4.58	.03	.005	.57
	MS=	7.26					
오차	SS=	1488.75					
	MS=	1.60					
피험자내							
태도요인간(T)	Hotelling's Trace	.92	(2, 925)	425.71	.000	.48	1.00
T x G	Wilks' Lambda	1.00	(2, 925)	1.43	.24	.00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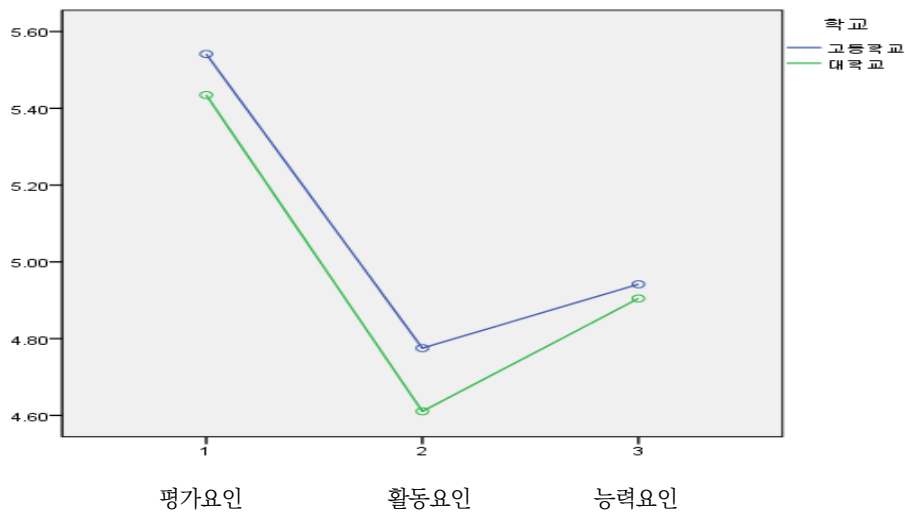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무용에 대한 학교급별간, 태도요인간 평균

2. 현대무용에 대한 태도요인간 차이

현대무용에 대한 태도요인간 측정치들의 집단간 동등성 검증결과 Box M의 값이 8.07, $F(6, 6201492.02) = 1.34$, $p = .24$ 로써 집단간 변량의 동질성 가정은 만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uchly의 구형성 가정 검증결과 $w = .92$, $\chi^2 = 80.83$, $df = 2$, $p < .001$ 로써 세 가지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의 변량은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형성 가정 검증결과를 기초로 이 자료는 다변량분석(MANOVA)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교급별간(G) x 태도요인(T)간의 상호작용효과는 Wilks' $\lambda = 0.98$ $F(2, 925) = 10.43$, $p < .001$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학교급별로 태도요인간 단순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학교급별로 구형성 검증결과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w=.91$, $\chi^2=45.43$, $df=2$, $p<.001$, 대학교 여학생의 경우 $w=.93$, $\chi^2=35.65$, $df=2$, $p<.001$ 로 나타남으로써 각 집단의 세 가지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의 변량은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MANOVA 분석결과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세 가지 태도요인의 평균 간에는 Hotelling의 $T^2=0.12$, $F(2, 468)=28.63$, $p<.001$, $\eta^2=.11$ 로써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태도요인간 대비검증(contrast) 결과에 의하면 평가요인과 활동요인 간에는 $p<.001$, $\eta^2=.07$, 평가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p<.001$, $\eta^2=.08$ 로써 통계적,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p=.29$, $\eta^2=.002$ 로써 통계적,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세 가지 태도요인의 평균 간에는 Hotelling의 $T^2=0.01$, $F(2, 456)=2.76$, $p=.06$, $\eta^2=.012$ 로써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적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태도요인간 대비검증(contrast) 결과에 의하면 평가요인과 활동요인 간에는 $p=.90$, $\eta^2=.00$ 로써 통계적,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요인과 능력요인 간, 활동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동일하게 $p=.03$, $\eta^2=.01$ 로써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적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대무용에 대한 태도점수는 학교급별 간에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여학생은 대학교 여학생에 비해 현대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고등학교: $M=5.3$ > 대학교: $M=5.1$)하고 있을 뿐 활동요인과 능력요인에서는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표 2참조). 고등학교 여학생은 현대무용의 평가요인($M=5.3$)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활동요인($M=5.0$)과 능력요인($M=5.0$)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각하고 있다. 반면 대학교 여학생은 평가요인($M=5.1$)과 활동요인($M=5.1$)이 능력요인($M=5.0$)에 비해 그 평균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 실제적인 차이는 매우 적거나 없다.

표 4. 현대무용에 대한 태도요인간, 학교급별간 MANOVA 결과

		value	df	F	p	η^2	Power
피험자간							
학교급별간(G)	SS=	.22	(1, 926)	.34	.56	.00	.09
	MS=	.22					
오차	SS=	579.11					
	MS=	.63					
피험자내-전체							
태도요인간(T)	Hotelling's Trace	.04	(2, 925)	19.95	.000	.04	1.00
T x G	Wilks' Lambda	.98	(2, 925)	10.43	.000	.02	.99
피험자내-고등학교							
태도요인간(T)	Hotelling's Trace	.12	(2, 468)	28.63	.000	.11	1.00
피험자내-대학교							
태도요인간(T)	Hotelling's Trace	.01	(2, 456)	2.76	.06	.01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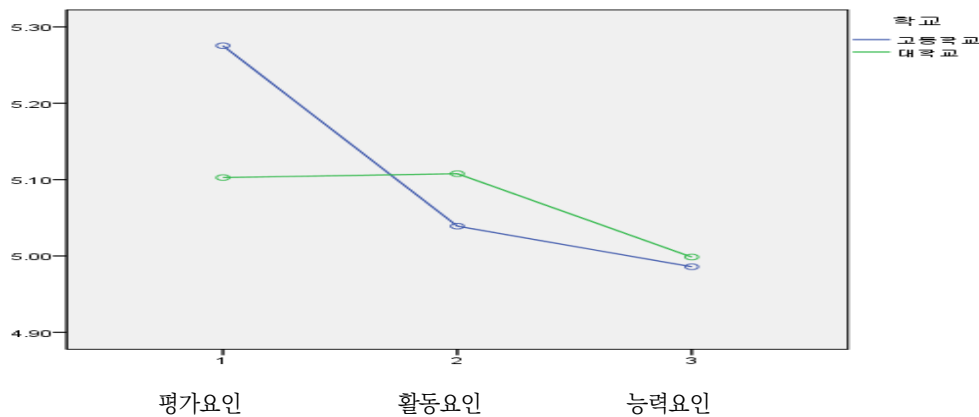


그림 2. 현대무용에 대한 학교급별간, 태도요인간 평균

3. 발레에 대한 태도요인간 차이

발레에 대한 태도요인간 측정치들의 집단간 동등성 검증결과 Box M의 값이 14.10, $F(6, 6201492.02)=2.34$, $p=.03$ 으로써 집단간 변량의 등질성 가정은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uchly의 구형성 가정 검증결과 $w=1.00$, $\chi^2=1.71$, $df=2$, $p=.43$ 으로써 세 가지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의 변량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형성 가정 검증과정에서 산출된 Huynh-Feldt의 ϵ 값이 1.00으로 나타남으로써 반복측정 ANOVA를 적용하여 분석된 통계치 중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교급별간(G) x 태도요인(T)간의 상호작용효과는 $F(2, 1852)=3.03$, $p=.049$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태도요인간 단순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학교급별로 구형성 검증결과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w=.98$, $\chi^2=8.30$, $df=2$, $p=.02$ 로 나타남으로써 세 가지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의 변량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여학생의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 차이는 MANOVA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Hotelling의 $T^2=0.13$, $F(2, 468)=29.60$, $p<.001$, $\eta^2=.11$ 로써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 여학생의 경우 $w=.98$, $\chi^2=5.10$, $df=2$, $p=.08$ 로 나타남으로써 세 가지 태도요인 측정치들 간의 변량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형성 가정 검증과정에서 산출된 Huynh-Feldt의 ϵ 값이 .99로 나타남으로써 반복측정 ANOVA를 적용하여 분석된 통계치 중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반복측정 ANOVA 분석결과 세 가지 태도요인의 평균 간에는 $F(2, 914)=52.67$, $p<.001$, $\eta^2=.10$ 으로써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발레에 대한 세 가지 태도요인간 대비검증(contrast) 결과에 의하면 평가요인과 활동요인 간에는 $p<.001$, $\eta^2=.11$, 평가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p<.001$, $\eta^2=.06$ 으로써 통계적,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동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p=.10$, $\eta^2=.006$ 으로써 통계적,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대비검증(contrast) 결과에 의하면 평가요인과 활동요인 간에는 $p<.001$, $\eta^2=.17$, 평가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는 $p<.001$, $\eta^2=.08$, 활동요인과 능력요인 간에도 $p<.001$, $\eta^2=.04$ 로써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발레에 대한 태도점수 역시 학교급별 간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 대학교 여학생은 고등학교 여학생에 비해 발레를 보다 활동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 (고등학교: $M=4.85$ < 대학교: $M=4.94$)이다 (표 2참조).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여학생들은 발레의 활동요인($M=4.9$)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능력요인($M=4.8$)과 평가요인($M=4.5$) 순으로 지각하고 있다.

표 5. 발레에 대한 태도요인간, 학교급별간 MANOVA 결과

		value	df	F	p	ηp^2	Power
피험자간							
학교급별간(G)	SS=	.08	(1, 926)	.29	.59	.00	.08
	MS=	.08					
오차	SS=	249.72					
	MS=	.27					
피험자내-전체							
태도요인간(T)	SS=	109.52	(2, 1852)	80.10	.000	.08	1.00
	MS=	54.76					
T x G	SS=	4.12	(2, 1852)	3.03	.049	.003	.59
	MS=	2.07					
오차	SS=	1266.11					
	MS=	.68					
피험자내-고등학교							
태도요인간(T)	Hotelling's Trace	.13	(2, 468)	29.60	.000	.11	1.00
피험자내-대학교							
태도요인간(T)	SS=	73.16	(2, 914)	52.57	.000	.10	1.00
	MS=	36.58					
오차	SS=	634.93					
	MS=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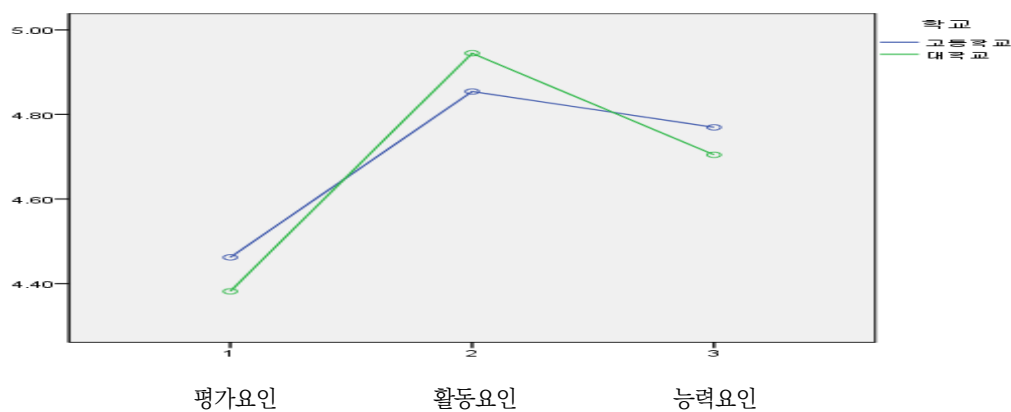


그림 3. 발레에 대한 학교급별간, 태도요인간 평균

4. 무용유형별 태도요인의 시대적 변화

무용유형별 태도요인에 대해 일반 여학생들이 지각한 정도에 시대 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8년에 조사된 결과(허경자, 1998)와 2017년 현재 조사한 결과 간의 차이를 t 검증에 의한 유의수준(p)과 효과크기($ES: d$)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조사년도별, 무용유형별 태도요인간 평균, 표준편차, p , d 는 <표 6>과 같다. 그리고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용유형별 태도요인별 연도별 평균을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표 6>과 <그림 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1998년과 2017년 태도요인별 평균 간에는 발레의 능력요인을 제외한 모든 무용유형의 태도요인에서 통계적($p < .001$)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d > 0.34$)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의 능력요인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해 현재가 평균은 향상된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는($p = .17, d = 0.06$)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태도요인은 한국무용의 평가요인($p < .001, d = 2.36$)과 발레의 활동요인($p < .001, d = 2.31$), 현대무용의 활동요인($p < .001, d = 2.24$)과 평가요인($p < .001, d = 2.05$)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무용의 능력요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p < .001, d = 0.42$)하였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태도변화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여학생 집단 각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그 정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여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표 6. 학교급별간, 무용유형별 태도요인의 연도별 평균±표준편차, 유의도수준(p), 효과크기(d)

무용유형	학교급별 요인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1998 ($n=485$)	2017 ($n=470$)	p	d	1998 ($n=464$)	2017 ($n=458$)	p	d	1998 ($n=949$)	2017 ($n=928$)	p	d
		한국무용	평가 요인	3.78±0.53	5.54±0.87	.001	2.44	3.79±0.52	5.43±0.87	.001	2.29	3.79±0.53	5.49±0.87
	활동 요인	3.66±1.09	4.78±0.88	.001	1.13	3.90±0.85	4.61±0.95	.001	0.79	3.78±0.98	4.69±0.92	.001	0.96
	능력 요인	5.31±1.18	4.94±1.02	.001	0.34	5.43±1.00	4.90±1.03	.001	0.52	5.37±1.10	4.92±1.03	.001	0.42
현대무용	평가 요인	3.68±0.50	5.28±0.96	.001	2.09	3.63±0.47	5.10±0.90	.001	2.05	3.65±0.49	5.19±0.94	.001	2.05
	활동 요인	3.81±0.81	5.04±0.98	.001	1.37	4.08±0.78	5.11±1.01	.001	1.14	3.94±0.81	5.07±1.00	.001	2.24
	능력 요인	3.83±0.75	4.99±1.02	.001	1.30	3.94±0.75	5.00±0.98	.001	1.21	3.89±0.75	4.99±1.00	.001	1.24
발레	평가 요인	3.90±0.43	4.46±0.51	.001	1.19	3.94±0.40	4.38±0.48	.001	1.00	3.92±0.42	4.42±0.50	.001	1.08
	활동 요인	2.65±1.02	4.85±0.92	.001	2.27	2.70±0.89	4.94±1.02	.001	2.34	2.67±0.96	4.90±0.97	.001	2.31
	능력 요인	4.59±0.92	4.77±1.03	.005	0.18	4.77±0.86	4.70±0.95	.241	0.08	4.68±0.89	4.74±1.00	.170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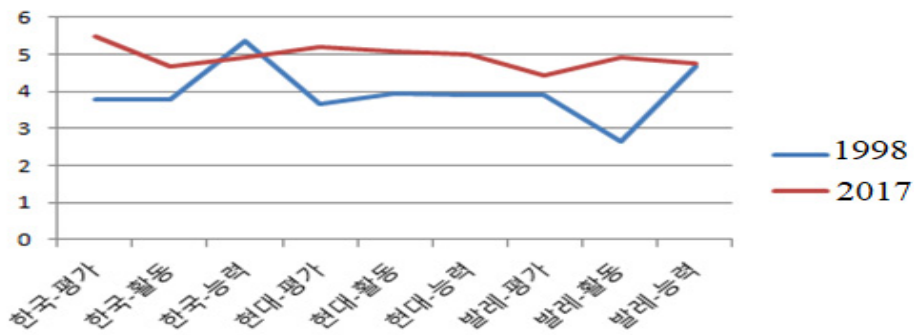


그림 4. 무용유형별, 태도요인별 연도별 평균변화

IV. 논 의

전통적으로 무용에 대한 태도는 Edwards (1973)와 Kenyon (1968), Osgood, Suci, & Tannenbaum (1957) 등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각급 학교 교사나 학생,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측정되어 왔다. 측정도구의 구성내용은 척도개발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구성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Kenyon (1968)이 개발한 척도는 체육교육의 목표 관점에서 측정요인을 '사회적 경험, 건강·체력, 모험추구, 미적 경험, 카타르시스 그리고 금욕적 경험'과 같은 6개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척도문항을 구성한 것이다. 무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일부 연구(두만균, 배경옥, 2003; 오윤자, 안경숙, 2007)는 Kenyon (1968)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무용분야에 적용하여 측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enyon (1968)과 Edwards (1973)가 개발한 태도척도는 그동안 무용현장에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지않게 적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측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요인 수 및 요인별 문항 수와 포함된 문항내용의 차이 때문에 상이한 시기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박윤희, 차수정, 2014).

역사적으로 다양한 자극(예를 들면 단어, 사물, 사건 등)에 존재하는 정서적 의미(affective meaning)의 차이는 즐거움(pleasure)과 긴장(tension), 억제(inhibition)라는 차원에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초 Wundt (1896)에 의해 보고된 이래(Bradley & Lang, 1994) 이러한 이론적 범주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Osgood, Suci, & Tanenbaum (1957)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다양한 지각적, 상징적 자극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즐거움, 긴장, 지배(dominance)'이라는 세 개 차원이 반복적으로 확인됨으로써(Bradley & Lang, 1994)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라는 자극에 대해 일반 여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의미분석척도(Osgood, Suci, & Tanenbaum, 1957)의 세 가지 측정요인은 Wundt (1896)가 정서적 반응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구명된 연구의 산물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별로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일반 여학생들이 세 가지 무용유형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태도수준은 이론적 평균($M=4.0$)보다는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용유형별 '가치평가(evaluation), 활동성(activity), 활력성(potency)'에 대해 여학생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그 수준 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학생들은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한국무용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M=5.5$)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활력적($M=4.9$)이고 활동적($M=4.7$)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현대무용에 대한 태도는 학교급별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대학교 여학생들에 비해 현대무용을 그 가치 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고등학교: $M=5.3$ > 대학교: $M=5.1$)하고 있을 뿐 활동성과 활력성에 대해서는 유사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학교 여학생들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태도수준 간에는 실제적인 차이가 매우 적거나 없다. 발레에 대한 태도는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여학생들은 발레를 가장 활동적($M=4.9$)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활력적($M=4.8$)이고 그 가치($M=4.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무용유형별로 지각한 요인별 태도수준 간에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요인에 대한 태도수준 역시 무용유형 간에 차이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각 무용유형에 대한 가치평가와 무용의 활동성, 활력성에 대해 여학생들은 차별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현대무용의 활동성과 활력성에 대한 높은 지각은 학생들이 다른 무용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거나 현대무용의 움직임이 보다 경쾌하여 학생들에게 호감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여학생들이 세 가지 무용유형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태도수준은 시대 간에 차이가 있다. 일반 여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당시의 무용에 대한 태도는 대부

분 척도의 평균에 해당하는 4.00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비해 2017년에는 무용유형과 학교급별에 관계 없이 4.00보다 높게 즉,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특징적인 사실은 시대별로 여학생들이 지각한 무용태도는 무용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한국무용과 발레를 가장 활력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현대무용에 대해서는 세 가지 태도요인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201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의 가치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발레에 대해서는 가장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또한 무용유형별로 볼 때 한국무용의 경우 1998년에 가장 높게 지각한 활력성을 2017년에는 다소 낮게 지각하고 있는데 반해, 낮게 평가한 무용의 가치를 2017년에는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무용의 가치평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활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발레의 경우 1998년에는 가장 낮게 지각한 활동요인을 2017년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지각함으로써 발레의 활동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현대무용은 그 활동성과 활력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1998년 태도요인별로 무용유형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여학생들은 무용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발레를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활동성은 현대무용이, 활력성은 한국무용이 가장 높다고 지각하였다(허경자, 1998).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대변화와 함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조사결과는 무용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한국무용을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활동성과 활력성은 현대무용이 가장 높다고 지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태도에 관한 연구는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비록 일부 연구자들이 태도와 실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다할지라도(Dockery & Bedeian, 1989; Wicker, 1971),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태도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활동에의 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Bandura, 1986; Pajares, 1992; Rikard & Bandville, 2006)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지난 20년 동안 여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변화는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판단된다.

V. 결론

첫째, 세 가지 무용유형에 대한 '가치평가'와 무용의 '활동성', '활력성'에 대해 여학생들은 차별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한국무용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무용은 가장 활동적이고 활력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둘째, 여학생들은 한국무용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활력적이고 활동적인 순서로 지각하고 있다.

셋째, 여학생들은 현대무용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활동적이고 활력적인 순서로 지각하고 있다.

넷째, 여학생들은 발레에 대해서는 가장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활력적이고 그 가치평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있다.

다섯째, 여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태도 즉, '무용에 대한 가치평가, 무용의 활동성과 활력성'에 대한 지각은 지난 20년 동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17).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 김주영 (2001). 무용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두만균,배경옥 (2003). 청소년의 무용활동에 대한 태도. *한국스포츠*, 14(3), 369-379.
- 박윤희,차수정 (2014). 무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태도. *대한무용학회*, 72(5), 1-18.
- 배진경 (2004). 초등학교의 무용 태도조사.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903-910.
- 백혜원 (1993). 무용전공 여대생의 심리적 특성비교: 자기 신체평가, 자기존중,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윤희 (2015). 무용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영주 (2010). 교양무용 수강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신체자신감 및 무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2(0), 1-21
- 오율자·안경숙 (2007). 초등학교 교사의 무용에 대한 태도. 제45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89.
- 허경자 (1998). 일반여학생의 무용유형에 대한 태도. 제36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657-662.
- 허경자,최운선,배진경 (1997). 무용전공학생의 무용유형에 대한 태도. 제37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910-918.
- 채지훈 (2002).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무용태도에 관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umgartner, T. A., Jackson, A. S., Mahar, M. T., & Rowe, D. A. (2007). *Measurement for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8th ed.). Boston, MA: McGraw Hill.
- Bonbright, J., Bradley, K., & Dooling, S. (2013). *Evidence: A report on the impact of dance in the K-12 setting*.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 Bradley, M. M. & Lang, P. J. (1994). Measuring emotion: The self-assessment manikin and the semantic differential.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5, 49-59.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ational Dance Association (1998). *Dance directions: 1990 and beyond*. Reston, VA: National Dance Association.
- Dockery, T., & Bedeian, A. (1989). Attitudes versus actions: Lapiere's (1934) classic study revisited.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7, 9-16.
- Edwards, H. (1973). *Sociology of sport*. Homewood, IL: Dorsey Press.
- Hall, M. A. (1972). Feminine woman and an athletic woman by female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sport. *Britis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 43-46.
- Harasym, C. R. (1969). Cultural orientation of rural ukraini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lgary.
- Hendry, L. B., & Douglass, L. (1975). University students: Attainment and spor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5(3), 299-306.
- Kenyon, G. S. (1968). Six scales for assessing attitude toward physical activity. *Research Quarterly*, 39, 566-574.
- Leech, N. C., Barrett, K. C., & Morgan, G. A. (2008). *SPSS for intermediate statistics, Use and interpreta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 Nieminen, P. (1998). Four dance subcultures: Study of non-professional dancers' socialization, participation motives, attitudes and stereotypes. Jyväskylä: University of Jyväskylä, Finland.
- O'Bryan, M. H.,m & O'Bryan, K. G. (1969). Attitudes of males toward selected aspects of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40, 343-352.
- Osgood, C. (1990). Language, meaning, and culture: In O. C. Tzeng (Ed.), *The selected papers of C. E. Osgoo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Osgood, C., Suci, G., & Tannenbaum, P.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 Pajares, M. F. (1992). Teachers' beliefs and educational Research: Cleaning up a messy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62(3), 307-332.

- Quin, E., Redding, E., & Frazer, L. (2007). The effects of an eight-week creative dance programme on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us of 11-14 year old adolescents: An experimental study. *Dance Science Research Report*. England: Hampshire Dance and Laban.
- Rikard, L.G & Banville, D. (2006). High school student attitudes about physical education.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1(4), 385-400.
- Werner, L. (2001). *Changing student attitudes toward math: Using dance to teach math*.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and Educational Improvement, University of Minnesota. October 2001.
- Wicker, A. W. (1971). An examination of the "other variables" explanation of attitude-behavior in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 18-30.
- Wundt, W. (1896). *Grundriss der Psychologie (Outlines of Psychology)*. Leibzig: Entgelmann.

ABSTRACT

**Attitude Toward Different Type of Dance Perceived by Female Youths:
Secular Change**Lim, Jeong-Hee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different type of dance perceived by the female youth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ir attitudes between 1998 and 2017 survey. The participants were 928 female youths selected by convenient samples from 17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attitude toward dance was measured by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such as evaluation, activity, and potency, developed by Osgood, Suci, Tannenbaum (1957). 14 adjective bipolar items selected on the basis of validity study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dance. Cronbach alpha was calculated and resultant values of .789, .816, and .777 for three dimensions. *MANOVA* and 2-factors mixed ANOVA were used and alpha level was set at .05. Significant attitude differences across three dance types such as Korean dance, Modern dance, and Ballet were revealed within the female youths, Hotelling's $T^2=238.59$, $p<.001$. Female youths in general showed a high positive attitude toward 'evaluation factor' ($M=5.5$) for Korean dance and 'activity factor' ($M=5.1$) and 'potency factor' ($M=5.1$) for Modern dance, whereas relatively a low attitude toward three factors for Ballet with the lower than 4.9 of mean. The attitude toward dance of female youths, more specifically for all other attitude dimensions except potency for Ballet ($p=.17$, $d=0.06$), has positively changed during last 20 years.

Key words : attitude toward dance, Female yout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MANOVA*

논문투고일: 2017. 09. 09
논문심사일: 2017. 10. 02
심사완료일: 2017. 10. 02